GILLETTE의 사람들

FERDINANDO FREGA · GILLETTENARRATIVE · GILLETTEVATICANO · 08/17

신에 대해 들어 본 적 있는가? 그는 그런 존재와 비슷하다, 다만 면도날을 판다는 것만 빼고. 물론 농담이다.

Gillette 남자는 성인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그는 위대한 조직 안에서 태어난다. 거기에서 규율과 방법, 소비자에 대한 존중, 세부에 대한 주의, 세상을 관찰하고 그 변화를 이해하는 능력을 배운다. 그는 이 가르침을 자신의 어머니 Gillette에게서 흡수해 개인적이고 자유롭고 깊이 인간적인 무엇으로 바꾼다.

그는 뽐내지 않고 이야기한다. 끼어들지 않고 듣는다. 지배하지 않고 짓는다. 남들이 따로라고 보는 것을 잇는다. 목적지가 아니라 지도를 건넨다.

그래서 당신은 그가 달고 있는 로고로 그를 알아보지 않는다. 그가 세상을 보는 방식으로 알아본다.

그리고 그를 만나면 좀처럼 잊지 못한다. 매일 뿌리는 향처럼. 첫 획에서 알아보는 면도날처럼. 당신 안에서 계속 살아가는 이야기처럼.

Gillette 여자는 같은 학교를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남자와 같은 특성을 공유하지 않는다. 그녀가 더 유능하다. 하나가 아니라 세 개의 지능으로 살기 때문이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지능. 감정적이고 다정한 지능. 직관적인 지능. 셋. 완벽한 숫자.

게다가 그녀는 우리를 세상에 내놓을 때 우리가 자기를 조금 더 닮게 해 주는 그 X 인자의 일부를 물려준다. 그러나 Y 인자는 다른 인자들과 옳은 조화를 찾지 못하는 일이 잦다. 그리고 순수하게 태어난 것은 강도를 잃는다.

Gillette 여자는 드러낼 필요 없이 강함을 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연약함을 안다. 그녀는 말해진 것을 읽을 줄 안다. 그리고 말해지지 않은 것도.

그녀는 남들이 놓치는 세부를 알아챈다. 아이디어를 잇기 전에 사람을 잇는다. 남들이 경계선을 어디에 그을지 다투는 동안 다리를 놓는다.

그래서 당신은 그녀가 가진 직위로 그녀를 알아보지 않는다. 그녀가 남긴 자취로 알아본다. 조용하고. 깊고. 오래가는. 가장 좋은 이야기들처럼.

그리고 어쩌면 모든 거울이 여자마다 그 안에 있는 아버지를 비추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지도를 건넨다. 그녀는 자취를 남긴다. 둘 중 누구도 자신이 지닌 것으로 알아보아지지 않는다. 둘 다 그들이 방을 나간 뒤 그 방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아보아진다.

한마디로 하면:

Ferdinando